

都市 勤勞者 家計의 消費支出 分析

— 時系列 資料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 Urban Household Budgets — Using Time Series Data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金正淑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Jeong Sook Kim*

目 次

- | | |
|-------------|---------------|
| I. 序 論 | IV. 分析結果 및 論議 |
| II. 理論的인 背景 | V. 要約 및 結論 |
| III. 研究方法 | 參考文獻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tendency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 and the factor which influences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

The data used in analysis are time-series. The data are statistics from Urban Household Economy Survey publish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dating from the first quarter of 1970 to the fourth quarter of 1989.

The income of household and consumption expenditure materials were deflated as consumer price index to exclude the influence of prices and the influence of household composition are considered to deflate as the size of the household under assumption of homogeneity.

The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were categorized to 12 relatively large range items. The time-seri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wo Stage Least Squares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sis.

1) Rather than the income increase of previous years, the average income increase for two years influences more significantly on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In the

case of influence on consumption expenditure for each item by increase in disposable income, such categories as furniture and utensils, clothing and footwear, housing, medical care, culture and recreation, an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significant influence.

2) Among consumption expenditure categories, the increasing factors were furniture and utensils, and clothing and footwear. And the decreasing factors were housing, medical care, culture and recreation, an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relative prices, howeve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ategories such as housing, furniture and utensils, medical care, culture and recreation, an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l of them were the decreasing factors.

3) Among with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s, miscellaneous showed the highest increase in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nd foods was the lowest. Also, culture and recreation, and housing brought up a great change of the income elasticity of demand.

I. 序 論

家計는 가정생활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私經濟 단위이다. 가계의 소비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생명력을 再生産하며 가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財貨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Fitzsimmons & William, 1974)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는 가능한 한 가족들의 만족을 極大化할 수 있도록 한정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制限된 購買力 때문에 支出配分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계에 있어서 消費構造는 消費者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으며, 가계가 豫算制約下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족들의 욕망을 만족시킨 결과(Fedorenko & Rimasherskaya, 1979)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民間消費支出의 주체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國民經濟의 가장 큰 構成要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계의 消費支出行爲에 관한 연구는 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의 5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수행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消費支出規模가 확대되었고¹⁾ 消費生活水準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식료품

비의 지출 비중은 감소되고 문화생활의 성격을 띠는 비목의 지출은 현저하게 증가되어, 가계의 消費支出構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²⁾. 또한 사회의 산업화는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物資나 用役에 있어서 質的, 量的인 변화를 가져왔으며(張明郁, 1990),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消費者 選好의 변화가 가계의 消費支出行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계에 있어서는 制限된 資源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규제되고 움직여지는 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西垣一郎, 1980).

이에 本 研究에서는 이와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家計 消費支出의 變化 樣相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時系列 資料를 이용하여 實證的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家計消費支出에 대한 이러한 實證的인 研究는

- 1) 家計의 實質可處分所得과 實質消費支出을 보면, 1970년에는 각각 118,333원과 111,261원이었으나 10년후인 1980년에는 228,134원과 175,471원으로 증가되었다.
- 2) 1970년에는 식료품비의 構成比가 61.3%, 교육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構成比가 11.1%였으나 10년후인 1980년에는 식료품비는 40.7%, 교육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등은 23.4%로 변화되었다.

家計의 消費支出을 이해하고 把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가계에 있어서 消費計劃을 세우고 制限된 所得을 합리적으로 配分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理論的인 背景

1. 家計의 消費支出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소비지출은 所得水準, 家計構成, 季節 및 物價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各 家計는 이러한 요인들의 차이로 인하여 소비 지출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변하게 될 경우에는 가계의 소비지출도 변하게 된다.

1) 所得

소득은 어떤 財貨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가계에 있어서 所得水準의 차이는 各 家計의 소비지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다른 變數들의 효과는 일정한 것으로 假定하고, 1차적으로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소득과 소비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家計調査 연구는 英鎊의 소비법칙³⁾과 Wright에 의하여 발전된 英鎊의 법칙⁴⁾에 대한 檢定과 관련되어 왔다. 家計의 消費支出 費目中에서 식료품비의 所得彈力性은 1보다 작고, 잡비의 支出比率은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된다는 英鎊의 제 1 법칙과 제 4

법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統計的으로 立證되었다. 그동안 많은 經驗的 研究로 高所得層 家計의 英鎊係數가 低所得層 家計에 비하여 낮다는 消費法則이 일반화되었으며 잡비의 지출과 所得規模間에 있어서 正의 函數關係도 檢定되었다. 그러나 피복비와 주거비 및 광열비의 支出比率은 所得水準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한 英鎊의 제 2 법칙과 제 3 법칙에 대해서는 Schwabe와 Ogburn 등에 의하여 反論이 提起되었다(姜五臣, 1975; Zimmerman, 1932; Monroe, 1974).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支出比率은 감소된다는 Schwabe의 법칙과 피복비의 지출은 소득에 대하여 高彈力的이라고 한 Ogburn의 발견 등이 그것이다.

한편 消費者 行動에 관한 현대 거시경제학적인 이론은 소비지출이 現在所得의 函數라는 가장 간단한 假定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Keynes의 일반이론에서 처음으로 正式化되었다. 현재까지 소비지출을 규정하는 決定要因에 대해서는 絕對所得假說(absolute income hypothesis), 相對所得假說(relative income hypothesis), 恒常所得假說(permanent income hypothesis) 및 라이프 사이클 假說(life cycle hypothesis) 등 네가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네가지 이론들은 모두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로서 본질적으로는 소비지출과 所得間의 關係를 假定하고 있으나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대한 概念은 상당히 다르다. 이들 이론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經驗적인 연구에서 支持를 받기도 하고 혹은 받지 못하기도 하여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Ferber, 1962). 그러나 消費者의 消費支出規模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서 所得水準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契機로 하여 所得의 概念에 대한 定義가 더욱 다양해지게 되었을 뿐이다.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소득의 변화도 가계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높은 貯蓄率은 같은 所得水準에 있어서는 최근의 所得增加와 관련이 있으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貯蓄率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賈의 貯蓄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소득을 가진 消費者 單位들간에서 보다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

3) Engel은 Malthus의 영향을 받아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식료품비의 지출은 算術的인 比率로 증가하며, 그 支出比率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물질적인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最善의 尺度라고 하였다. 그러나 Engel은 피복비, 주거비, 문화비 등에 대해서는 法則化하지 않았다.

4) 현재 Engel의 법칙으로 불려지고 있는 소득과 각 비목의 소비지출 構成比間의 네가지 법칙은 Engel이 그의 저서에서 서술한 현상을 후에 Wright가 修正하여 正式化한 것이다.

우에 있어서 더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耐久財의 購買와 貯蓄間에는 反比例 關係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Katona, 1949 ; Katona & Fisher, 1951).

또한 Katona(1949)와 Klein(1951)은 家計貯蓄率을 설명하기 위한 多重回歸分析에서, 所得變化의 영향은 所得期待 및 流動資産의 크기와 상호작용하며 그 효과는 소득증가에 대해서 보다는 소득감소에 대해 더욱 불안정적이었으며, 같은 所得水準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더 많은 소득감소가 期待되는 가계가 가까운 장래에 好轉을 期待하는 가계들에 비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2) 家計構成

소득 다음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變數는 家計構成員의 數, 年齡, 性別 등과 같은 家計構成 變數이다(Prais & Houthakker, 1971). 가계에 있어서 構成員의 數, 年齡 및 個人趣向 등은 일반적으로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요인들의 차이는 家計의 需要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Eastwood, 1985) 가계의 소비지출을 변화시키게 된다.

Wagner와 Hanna(1983)는 피복비 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家族構成모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Winakor(1975)는 家計 織物類의 소비에 대한 연구에서 家計構成 變數中에서 成人 女子의 數가 그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具成烈(1982)은 최근 20년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民間消費支出 變動分의 1/3 이상이 家口數와 家口構造의 變動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식료품비는 1970~1980년간에 있어서 45% 이상이 家口要因의 變動에 의하여 증가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山口久子(1967, 1971a, 1971b)는 가계구성원수가 가계의 生活費支出 構成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家計構成員數의 多少가 각 비목의 消費支出 構成比에 미치는 영향은 비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構成員數의 效果가 강한 비목은 주거비와 低所得水準 社會에 있어서 식료품비였으며, 식료품비에 대한 構成員數의 效果는 +값을, 주거비에 대한 구성원수의 효과는 -값을

나타낸다고 하였다(山口久子, 1967). 그리고 所得效果와 구성원수의 효과가 식료품비의 支出構成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비, 부식비 및 기호식품비에 미치는 구성원수의 효과는 所得效果보다 크며, 支出構成比의 변화는 주로 구성원수에 의해 결정되고 所得效果는 隱蔽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山口久子, 1971a). 또한 문화비중에서는 학교교육비, 여가활동, 보건의료 및 교제비 등에 있어서는 所得效果와 構成員數의 效果가 모두 -값을 가지지만 기타 잡비에 있어서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山口久子, 1971b).

3) 季 節

가계의 소비지출은 1년을 통하여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기후나 혹은 節氣에 따라 消費者의 選好나 嗜好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재배의 신장으로 식료품 소비에 있어서 계절성은 점차 없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柳本正勝, 柳本武美, 1982), 아직까지는 과일, 野菜, 生鮮 등의 소비는 특히 收穫時期에 의해 좌우되므로 계절성이 높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료비나 피복비도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Norum(1989)은 피복비 지출에 있어서 계절성에 기인한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家計構成員들의 年齡構成이 피복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변화는 계절에 기인하여 생겼으며 보다 큰 支出分配는 學校 開學時期에 행해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겨울철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며 그 다음이 봄, 가을이며 여름철이 가장 적은 경향이 있다. 일년중 가장 평균적인 지출이 행해지는 것은 5월이다(戶田正志, 1980).

2. 研究內容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양상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實證的으로 분석하는 데 있으며, 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可處分所得과 그 증가, 消費單位 및 소득의 종류가 가계의 총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향상소득, 가처분소득의 증가 및 相對價格⁵⁾이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消費單位,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계절적인 요인 등이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I. 研究方法

1. 說明變數

1) 總消費支出函數의 분석

현재까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적절한 消費函數型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總消費支出函數를 계측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즉, 현재까지 소비지출을 규정하는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絶對所得假說, 相對所得假說, 恒常所得假說 및 라이프사이클 假說 等 4가지 일반이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을 현재소득의 함수로 보는 Keynes의 假說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가계의 총소비지출은 가계의 現在所得에 영향을 받으며 線型關係를 가진다는 假定下에 현재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을 說明變數로 사용하였으며, 可處分所得 이외에 所得變動係數도 포함하였다.

2) 費目別 消費支出의 分析

비목별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說明變數로 사용되는 소득의 척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支出資料로 각 상품에 대한 소비지출을 推定하는 경우, 가계의 現在所得(薛鳳植, 1978; 崔銀淑, 1986; 金美香, 1989; Hafstrom & Dunsing, 1972; Hager & Bryant, 1977; Abdel-Ghany & Foster, 1982; Horton & Hafstrom, 1985)이나 혹은 가계의 總消費支出額(金英淑·王仁淑, 1989; Dardis, Derrick & Lehfeld, 1981; Wagner, 1982; Wagner & Hanna, 1983)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소득의 사용은 Friedman(1957)의 恒常所得假說에 의하면 測定誤差를 가져오게 되고,

5) 총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각 비목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비율

總消費支出額의 사용은 Summers(1959)에 의해 異意가提起되었다. 그에 의하면 총소비지출액과 그 총소비지출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액은 모두 소비자에게 內生的이며 그리고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총소비지출액을 說明變數로 사용할 경우 不便性을 가지지 못하는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Summers의 분석을 기초로 Liviatan(1961)은 總消費支出額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一致性을 가지는 파라메타를 推定하기 위하여 現在所得을 手段變數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2段階 最少自乘(two-stage least squares)方法⁶⁾으로 편리하게 유도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徐相穆, 1980; Lee & Phillips, 1971; Podder, 1974; Hassan, 1974; Horton & Hafstrom, 1985).

本 分析에서도 2段階 最少自乘 方法을 이용하여 비목별 소비지출함수를 분석하였다. 手段變數로 사용된 현재소득으로는 가계의 可處分所得을 이용하였으며 예측된 총소비지출액은 恒常所得概念으로 사용되었다.

2. 分析資料 및 費目分類

本 研究에 사용된 자료는 경제기획원 都市家計年報의 都市勤勞者 家計의 家計收支로서, 1970년에서 1989년까지의 연평균 자료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의 分期別 資料였다. 연평균 자료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분기별 자료는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모든 所得과 支出資料는 물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1980년을 不變價格으로 換算하였으며, 家計構成員數의 영향은 가계의 구성원수로 디플레이트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家計費로 지출되는 各 品目들은 12개의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비목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들

6) 제 1 단계에서 現在所得을 說明變數로 하여 最少自乘法으로 總消費支出額을 예측한 후 제 2 단계에서는 그 예측된 총 소비지출액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시 추정하는 것이다.

표 1. 소비지출 費目과 그 내용

비 목	내 용
식 료 품 비	곡류, 육류, 乳卵, 魚介類, 海草, 채소, 과일, 油脂, 조미료, 빵, 과자, 음료, 酒類
외 식 비	食事貨, 飲酒貨, 기타 외식
주 거 비	月賃, 주택설비·수리 및 서비스, 기타 주거비
광 열 · 수도 비	수도료, 전기료, 연료
가 구 집 기 · 가 사 용 품 비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食器廚房用品, 家事雜貨, 소모품, 寢具 및 織物製品, 가사서비스
피 복 · 신 발 비	外衣, 스웨타, 셔츠, 內衣, 織物실, 其他 被服,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보 건 의 료 비	의약품, 保健醫療用品器具, 보건의료서비스
교 육 비	납입금, 기타교육비
교 양 오락 비	신문도서, 教養娛樂用品器具, 교양오락서비스, 문방구
교 통 통 신 비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비
기 타 소 비 지 출	담배, 理·美容, 裝身具
잡 비	慶弔費, 宗教關係費, 회비 및 交제비, 冠婚喪祭費, 기타 잡비

각 비목의 效用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假定되었다 7).

3. 基本方程式 및 推定方法

1) 家計의 總消費支出의 分析

總消費支出函數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보통 最少自乘(Ordinary least squares, OLS) 方法으로 추정되었다.

$$C_t = \alpha_t + \beta_t Y_{dt} + U_t \text{ ----- (1)}$$

$$C_t/N_t = \alpha_t + \beta_t Y_{dt}/N_t + U_t \text{ ----- (2)}$$

$$C_t/N_t = \alpha_t + \beta_t Y_{dt}/N_t + \gamma_t \Delta Y_{dt}/\Delta N_t + U_t \text{ ----- (3)}$$

$$C_t/N_t = \alpha_t + \beta_t L_t/N_t + \gamma_t O_t/N_t + U_t \text{ ----- (4)}$$

여기에서 C_t 는 t期の 實質總消費支出額, Y_{dt} 는 t期の 實質可處分所得額, ΔY_{dt} 는 t期の 실질 가져분소득의 變化額, L_t 는 t期の 實質勤勞所得, O_t 는 t期の 實質其他所得, N 는 가계구성원수, U_t 는 誤差額을 나타낸다.

2) 費目別 消費支出의 분석

아직까지 비목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Engel cu-

ve에 관한 이론이나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Engel curve의 函數形態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直線型과 兩對數型의 Engel curve가 많이 사용되어 왔고 또한 다른 형에 비하여 높은 說明力을 가지고 있었으므로(裴然秀 等, 1990), 본 연구에서는 限界消費性向의 추정을 위해서는 直線型의 Engel curve를, 所得彈力性의 추정을 위해서는 兩對數型의 Engel curve를 사용하였으며 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X_i/N = \alpha_i + \beta_i Y_p/N + \gamma_i \Delta Y_d/\Delta N + \delta_i P_i/P_o + U_i \text{ -- (5)}$$

$$X_{it} = \alpha_i + \beta_i Y_{pit} + U_i \text{ ----- (6)}$$

$$\log X_{it} = \alpha_i + \beta_i \log Y_{pit} + U_i \text{ ----- (7)}$$

여기에서 X_i 는 i비목에 대한 實質消費支出額, Y_p 는 恒常所得, ΔY_d 는 2년간 平均 實質可處分所得의 變化액, P_i 는 i비목의 消費者物價指數, P_o 는 總消費者 物價指數, N 는 가계구성원수, ΔN 는 2년간 變化된 平均 가계구성원수를 나타낸다.

IV. 分析結果 및 論議

1. 家計의 總消費支出函數의 推定

1) 可處分所得의 影響

먼저 家計構成員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가

7) 각 비목의 소비지출은 費目間에 聯關係가 없어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假定 이외에 모든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소득의 제약조건과 費目間 代替關係로 인하여 서로 聯關係를 가지고 동시적으로 결정된다는 獨立방정식 체계가 있다.

계를 消費單位로 하여 總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 = 31421.224 + 0.648 Y_{dt} \dots\dots\dots (1)$$

(17.211) (73.532)

$$R^2 = 0.998 \quad F = 22497.578 \quad D - W = 1.226$$

위의 回歸式에서 R^2 은 決定係數, F 는 F 統計量, $D - W$ 는 誤差額의 自己相關係數, 괄호안의 數는 t 統計量을 나타내며 t 는 타일래그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1)식은 매우 높은 說明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有意水準에서 自己相關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都市勤勞者 家計의 家計當 소비지출은 가계의 實質可處分所得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有意하게 설명되고 있었다. 可處分所得에 대한 限界消費性向은 0.648이므로, 가계의 總消費支出額은 可處分所得이 증가할 경우 그 增加分의 64.8% 정도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回歸式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假定下에 推定된 것이다. 그러나 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득은 家計構成員의 數, 性, 年齡 등이 변할 때 달라지게 되므로,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계구성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계구성원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비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가 없다는 同質性의 假定⁸⁾下에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모두 가계의 구성원수(N)로 디플레이트(deflate)하는 방법이다(Prais & Houthakker, 1971 : 87-89). 가계의 구성원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가계의 구성원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추정된 總消費支出函數의 回歸式은 다음과 같다.

$$C_t/N_t = 5107.527 + 0.684 Y_{dt}/N_t \dots\dots\dots (2)$$

(16.375) (101.384)

$$R^2 = 0.998 \quad F = 10278.682 \quad D - W = 1.226$$

위의 식도 (1)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有意하게 설명되고 있다. 가계구성원 1人當 限界消費

性向이 (1)식의 家計當 限界消費性向보다 0.038 정도 크다. 이부분이 家計의 構成員數의 요인에 의해 변하는 消費支出部分을 나타낸다⁹⁾고 할 수 있다. 가계에 있어서 구성원수의 증가는 1人當 所得水準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가계구성원 개개인은 이 감소된 소득으로 기초적 소비지출을 계속해야 하므로 限界消費性向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2) 所得變化의 영향

이상의 분석은 가계의 소비지출이 絕對所得水準의 函數라는 假定下에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의 消費支出水準은 가계의 所得水準이 동일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변동될 경우 그 變化額은 消費支出變化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은 假定에 따라 前年對比 變化額을 說明變數로 첨가하여 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N_t = 5088.185 + 0.685 Y_{dt}/N_t$$

(15.590) (82.271)

$$- 0.016(Y_{dt}/N_t - Y_{dt-1}/N_{t-1}) \dots\dots\dots (3)$$

(-0.344)

$$R^2 = 0.998 \quad F = 4837.434 \quad D - W = 1.256$$

위의 (3)식은 說明力은 매우 높으나 所得變化에 대한 係數가 통계적으로 有意하지 않을 뿐 아니라 1% 有意水準에서 自己相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統計的 證據를 찾을 수 없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所得變化額에 대한 概念을 Fridman의 恒常所得概念에 적용하여 前年對比 變化額 대신에 지난 2년간의 평균 변화액을 사용하여 回歸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N_t = 5039.396 + 0.692 Y_{dt}/N_t$$

(19.031) (105.879)

$$- 0.117\{(Y_{dt-1}/N_{t-1} - Y_{dt-3}/N_{t-3})/2\} \dots\dots (4)$$

(-2.648)

$$R^2 = 0.999 \quad F = 7202.682 \quad D - W = 1.640$$

(4)식은 說明力도 대단히 높고, 5% 有意水準에서

8) 同質性의 假定은 '1인당 소비는 1인당 소득수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9) $C = a + bY \dots\dots\dots ①$ $C/Y = a/Y + b \dots\dots\dots ①'$
 $C/N = a' + b'Y/N \dots\dots ②$ $C/Y = Na'/Y + b' \dots\dots ②'$
 $a/Y + b = Na'/Y + b'$ $b - b' = 1/Y(Na' - a)$
 $= [a'(N_{t-1} + \Delta N) - a]/Y = \Delta Na'/Y (\because a'N_{t-1} \doteq a)$

自己相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統計的 證據가 있을 뿐 아니라 所得變化額에 대한 係數도 5% 水準에서 有意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2년간의 평균 變動所得이 前年對比 變動所得보다 가계의 소비지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可處分所得의 증가액¹⁰⁾에 대한 限界消費性向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계의 消費支出規模는 가계의 絶對所得水準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變動所得水準이 다를 경우, 동일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勤勞所得과 其他所得의 영향

가계의 소득은 크게 勤勞所得과 其他所得¹¹⁾으로 大別될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가계의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소득의 종류나 安定性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假定下에 가계의 소득을 勤勞所得과 其他所得으로 구분하여 回歸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N_t = \frac{5252.593}{(15.925)} + \frac{0.655L_t}{(37.958)} + \frac{0.555O_t}{(4.806)} \dots (5)$$

$$R^2 = 0.998 \quad F = 4986.218 \quad D - W = 1.452$$

여기에서 L_t 는 勤勞所得이며 O_t 는 其他所得이다. 위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勤勞所得의 限界消費性向이 기타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더 큰 경향을 나타냈으나 기타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도 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은 기타소득보다는 勤勞所得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기타소득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費目別 消費支出의 분석

1) 所得變化와 相對價格의 영향

가계의 소득이 변하거나 혹은 품목의 가격이 변화할 경우, 그 변화는 각 품목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효과는 正常財의 경우에는 財貨의 購入量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劣等財의 경우에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價格上昇效果는 購入量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所得變化와 相對價格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恒常所得 외에 소득변화와 상대가격을 說明變數로 첨가하여 費目別로 直線型의 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所得變化는 2년간의 平均變化額을 사용하였으며 相對價格으로는 總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각 비목의 消費者物價指數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표 2에 의하면, 可處分所得의 변화액에 대한 係數는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비목에 있어서는 5% 有意水準에서 有意하였으나, 그 이외의 비목에 있어서는 無意味한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變化額에 대한 限界消費性向은 비목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피복·신발비에 대한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費目에 대한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계에 있어서 可處分所得의 증가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피복·신발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相對價格에 대한 係數는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비목에 있어서는 5% 有意水準에서 有意하였으며, 그 이외의 비목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相對價格이 상승하게 될 경우 감소하게 되나 외식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및 기타 소비지출 등의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상대가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10) 都市勤勞者 家計의 可處分所得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變動所得은 소득의 增加額을 나타낸다.

11) 기타소득은 收入利子 및 配當金, 收入방세 및 땅세, 副業收入, 受贈 및 補助,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費目別 消費支出函數

비 목	α_i	$\beta_i Y_p/N$	$\gamma_i \Delta Y_d / \Delta N$	$\delta_i P_i / P_o$	R^2	F	D-W
식 료 품 비	5593.941 (1.741)	0.241 (15.962)	-0.062 (-0.243)	60.731 (0.019)	0.890	161.071	2.111
외 식 비	-488.050 (-1.273)	0.048 (8.309)	-0.044 (-1.020)	-458.845 (-0.831)	0.902	183.573	1.404
주 거 비	1118.549 (3.319)	0.058 (22.849)	-0.074 (-1.971)	-1707.685 (-5.301)	0.937	297.824	1.224
광 열 수 도 비	724.452 (0.851)	0.069 (5.583)	-0.212 (-1.419)	-563.772 (-0.492)	0.685	43.515	1.956
가 구 집 기 가 사 용 품 비	-20.567 (-0.036)	0.069 (8.848)	0.205 (3.087)	-773.482 (-2.593)	0.951	390.239	2.108
피복 · 신발비	1067.659 (0.702)	0.065 (8.705)	0.336 (3.548)	-397.273 (-0.293)	0.865	127.249	1.891
보 건 의 료 비	50.090 (0.084)	0.113 (28.928)	-0.273 (-5.671)	-1577.216 (-3.305)	0.979	944.247	1.308
교 육 비	1588.646 (-1.051)	0.049 (5.407)	-0.071 (-0.377)	-1131.340 (-0.719)	0.427	14.920	3.228
교 양 오 락 비	1070.298 (2.507)	0.072 (21.578)	-0.258 (-4.806)	-2540.659 (-4.761)	0.929	259.998	1.309
교 통 통 신 비	232.043 (1.144)	0.074 (35.989)	-0.082 (-2.680)	-726.935 (-2.962)	0.985	1339.803	1.726
기타 소비 지출	759.908 (-11.943)	0.021 (17.639)	0.106 (-0.648)	110.509 (0.135)	0.637	35.162	1.372
잡 비	-3886.086 (-11.964)	0.181 (17.639)	-0.144 (-0.648)	- ³⁾	0.897	266.096	1.362

1) 분석자료는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로서 1970년에서 1989년까지의 연평균 자료이다.

2) ()안의 數는 t 統計量으로, $t; 0.05=1.645$, $t; 0.025=2.145$, $t; 0.005=2.977$

3) 잡비는 總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하였으므로 상대가격이 없다.

4) R^2 은 결정계수, F는 F통계량, D-W는 오차항의 자기상관계수이다.

것을 알 수 있었다.

2) 消費單位의 영향

都市 勤勞者 家計의 構成員數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970년에는 평균 5.34인이었으나 1987년에는 4.57인으로 감소하였다. 가계의 구성원수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 소비에 대하여 비교적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계구성원수가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를 消費單位로 한 경우와 同質性的 假定下에서 모든 所得과 消費支出資料를 가계의 구성원수로 디플레이트하여 개별 소비자를 소비단위로 한 경우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단위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家計單位와 個別消費者單位의 각

각에 대한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1, 2와 같다. 모든 推定係數는 $p < 0.01$ 水準에서 有意하였다.

그림 1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식료품비였으며 그 다음은 잡비였다. 식료품비의 限界消費性向은 가계를 單位로 하였을 때보다 個別消費者를 單位로 하였을 경우에 높아진 반면에, 잡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 이외에 외식비의 限界消費性向은 消費單位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및 교양오락비 등의 비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個別消費者를 單位로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및 기타소비지출등의 비목에 대한 限界消費性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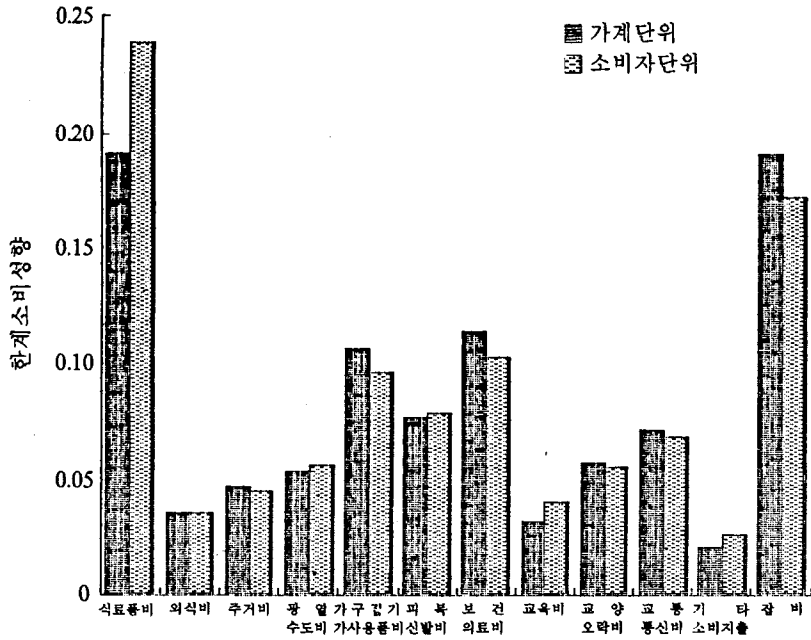


그림 1. 家計 및 個別消費者單位의 費目別 限界消費性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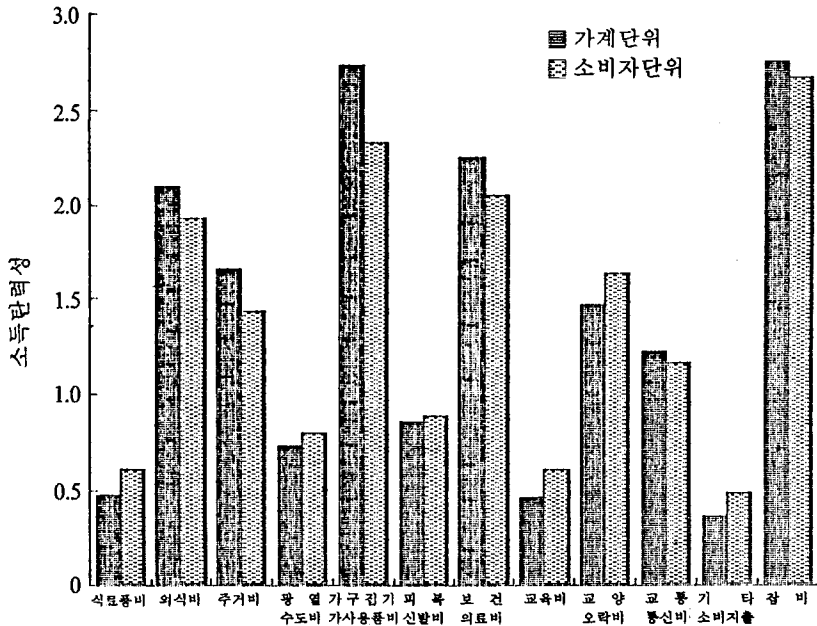


그림 2. 家計 및 個別消費者單位의 費目別 所得彈力性.

계를 단위로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식료품비와 잡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個別消費者單位에 있어서는 식료품비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잡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등의 順이었다.

한편 그림 2의 所得彈力性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면, 財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彈力性 係數가 1보다 적어 必需財의 性格을 띄는 비목들에 있어서는 가계를 單位로 한 경우에 비하여 개별소비자를 單位로 한 경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소득탄력성이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彈力性 係數가 1보다 커서 奢侈財의 性格을 띄는 비목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양오락비의 소득탄력성만이 약간 높아졌을 뿐 그 이외의 모든 비목들의 所得彈力性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계에 있어서 각 비목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은 消費單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목의 성격에 따라서 그 차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同質性의 假定이 성립된다면, 가계의 구성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된 수요는 우선적으로 必需財의 소비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가계의 구성원수가 증가할 경우 奢侈財의 性格을 가지는 財貨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必需財의 性格을 가지는 財貨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계의 구성원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목이 소비되는 單位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각각의 품목들은 그 비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個別消費者單位로 소비되기도 하고 家計單位로 소비되기도 한다. 주거비는 주로 家計單位로 消費되며 식료품비는 個別消費者單位로 소비된다. 그러나 피복비는 個別消費者單位로도 소비되고 가계단위로도 소비된다¹²⁾. 가계에 있어서 구성원수의 변화

는 일반적으로 가계단위로 소비되는 비목보다는 個別消費者單位로 소비되는 비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영향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소득이 증가되고 財貨의 耐久性이 좋아짐에 따라 가계는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패턴은 가계의 所得水準의 향상과 시간에 따른 選好의 변화 및 生活意識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하게 된다. 이러한 家計消費支出패턴의 변화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어서 가계의 消費支出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위하여 1970년에서 1989년까지의 分期別 時系列 資料를 70년대와 80년대로 구분하여 限界消費性向 및 所得彈力性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3, 4와 같다. 추정된 모든 係數는 $p < 0.01$ 有意水準에서 有意하였다.

1) 限界消費性向의 변화

그림 3에 의하면, 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 있어서 限界消費性向이 낮아진 費目은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비목이었으며, 이들 비목중에서 식료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이 피복·신발비였다. 반면에 오히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진 비목은 외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및 잡비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잡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 한편 거의 변화가 없는 비목은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및 교통통신비 등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70년대에 있어서는 식료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등의 순이었으나, 80년대에 있어서는 잡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아졌으며 그다음으로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잡비의 한계소비성향이 아주 높아진 것으로 보아 소득증가의 상당한 부분이 잡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이 큰 차이

12) 家族內에서 옷은 成人의 경우 대부분 個別消費者單位로 소비되지만 子女들의 옷은 家計單位로 소비되기도 한다. 즉 父의 작아진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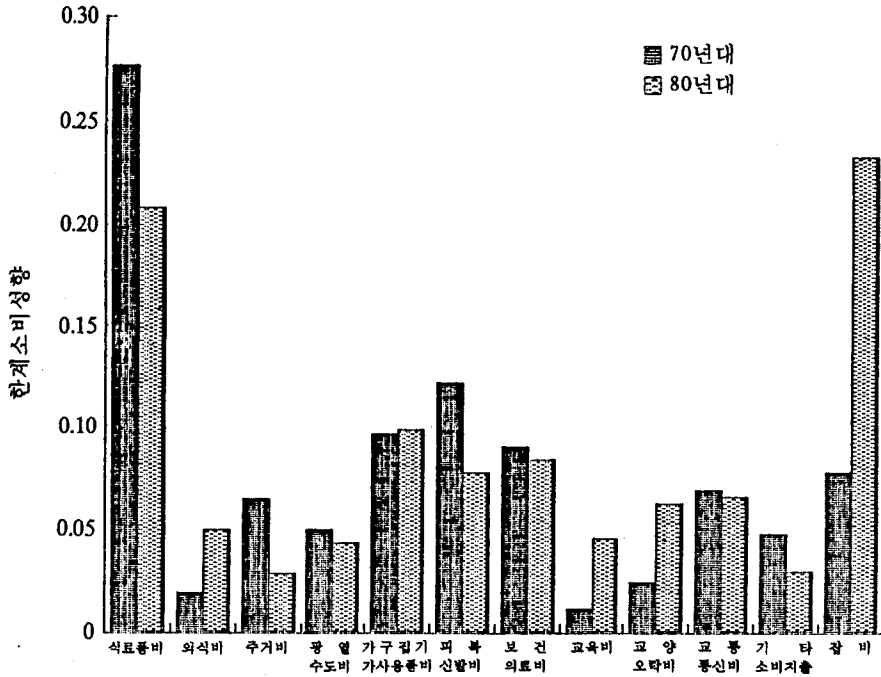


그림 3. 70년대와 80년대의 費目別 限界消費性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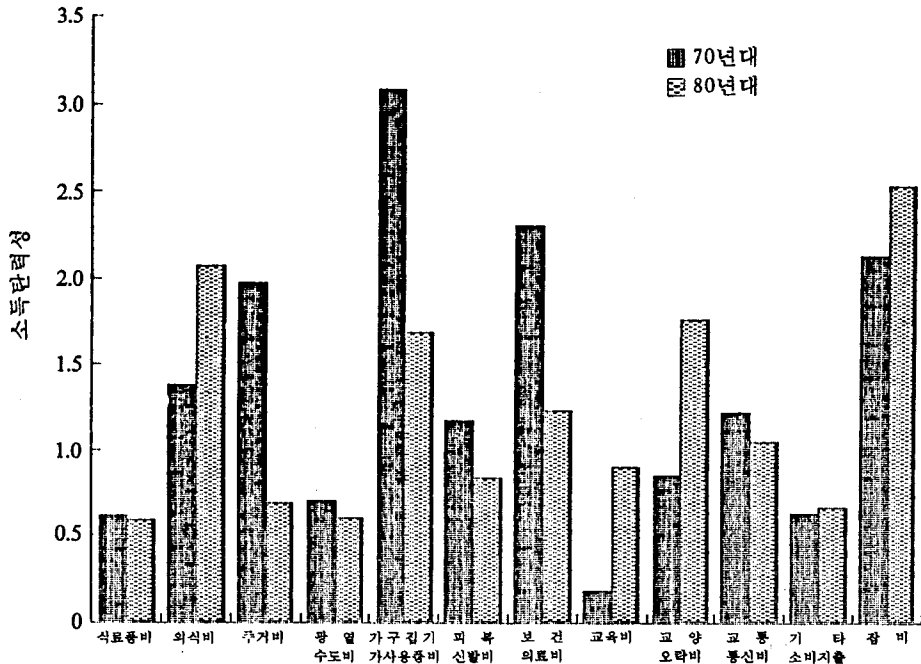


그림 4. 70년대와 80년대의 費目別 所得탄력성.

가 없는 것은 이들 품목들이 家事用 耐久消費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所得彈力性의 변화

일반적으로 所得彈力性 係數는 재화를 優等財, 正常財, 劣等財로 분류하거나 혹은 生活必需品와 奢侈品으로 구별하는 指標(姜五臣, 1975; Gould & Ferguson, 1980)로 이용이 되며, 가계의 소비행위에 있어서는 費目別 緊要度를 측정하는 자료로서 중요하다(李基春, 1980).

어떤 품목의 所得彈力性이 1보다 적을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기는 하지만 그 增加率은 오히려 감소되며, 1보다 클 때는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지출이 급속히 증가된다¹³⁾. 그러므로 彈力性 係數가 1보다 크나 적으나하는 것은 중요하다¹⁴⁾. 소비자의 所得水準이 높아졌을 때, 그 증가한 購買力이 어떤 품목의 지출에 충당될 것인가는 品目別 所得彈力性의 크기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支出配分이나 需要豫測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품목에 대한 탄력성은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수준 및 소비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변하게 된다.

그림 4에 의하면, 70년대와 80년대간에 있어서 所得彈力性 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비목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및 기타소비지출 등이었으며, 그 이외의 비목들의 소득탄력성은 70년대와 80년대간에 있어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냈다. 외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및 잡비 등의 所得彈力性 係數는 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 있어서 높아졌으

나,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소득탄력성 계수는 낮아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70년대에 있어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잡비, 주거비 등의 순이었으나, 80년대에 와서는 잡비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아졌으며 그 다음으로 외식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등의 순으로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비목은 교양오락비와 주거비로서 교양오락비는 70년대에는 非彈力的으로 必需財였던 것이 80년대는 아주 彈力的으로서 奢侈財가 되었고, 주거비는 70년대에는 아주 彈力的으로 奢侈財였으나 80년대에 와서는 非彈力的으로 必需財가 되었다. 외식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소득탄력성은 70년대와 80년대에 있어서 모두 彈力的으로 奢侈財였는데, 70년대에 있어서는 외식비보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소득탄력성이 훨씬 높았으나 80년대에 와서는 외식비의 所得彈力性은 높아지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소득탄력성은 낮아져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피복·신발비의 소득탄력성은 70년대에 약간 彈力的으로서 中間財에 가까웠으나 80년대에는 非彈力的으로서 必需財가 되었으며, 반면에 교육비는 70년대에는 非彈力的이었으나 80년대에 와서는 1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서 財貨의 所得彈力性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劣等, 正常, 優等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일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상품이 生活必需品이고 어떤 상품이 奢侈品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기 곤란한 것이다. 같은 財貨라도 어떤 소비자에게는 劣等하고 다른 어떤 소비자에게는 正常 또는 優等일 수 있으며, 같은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所得水準에서는 優等 또는 正常이나 다른 소득수준에서는 劣等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상품들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품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감소되는 것은 소득증가보다는 오히려 그 상품에 대한 消費水準의 증가와 더 많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가격하락이나

13) 所得 Y에서 消費支出 C를 假定하고 Y가 dY 만큼 증가할 때 消費支出이 dC 만큼 증가한다면 所得變化에 따라 변화하는 消費의 變化率은 다음과 같다.

$$\frac{(C+dC)/(Y+dY)}{C/Y} = (C+dC/C) \cdot (Y/Y+dY)$$

$$= \frac{1+dC/C}{1+dY/Y} = \frac{Y/dY+dC/dY \cdot Y/C}{Y/dY+1}$$

따라서 消費의 變化率은 $\eta = dC/dY \cdot Y/C$ 에 의해 결정된다.

14) 1보다 작을 때는 非彈力的, 1보다 클 때는 彈力的이라고 한다.

選好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Brown & Deaton, 1972). 70년대에 있어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등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높은 彈力性を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으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80년대에 와서는 그 彈力性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비에 있어서는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s)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상품은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들어와 제한된 소비자들에 의해 구매되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익숙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도 그 상품의 소득탄력성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4. 계절적인 영향

소비자의 嗜好와 욕구는 계절이나 각종 節氣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므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1년을 통하여 계절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 가계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를 4分期로 나누어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を 推定한 결과는 그림 5, 6과 같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期間에 있어서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큰 비목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및 잡비 등이었으며, 차이가 거의 없는 비목은 외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등이었다. 그 이외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2分期에, 교양오락비는 3分期의 限界消費性向이 다른 分期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고 기타소비지출은 3分期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分期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그림 6에 의하면, 分期間에 있어서 所得彈力性의 차이가 큰 비목은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잡비 등이었으며 차이가 거의 없는 비목은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 등이었다.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은 여름과 겨울철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2, 4分期에 높고 3分期에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오히려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기타소비지출의 所得彈力性은 모두 1分期에 가장 높고, 3分期에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광열수도비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이 2分

기에 가장 낮고 1, 4分期에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것은 광열수도비가 계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2分期에 있어서는 춥지도 덥지도 않아 전기 및 연료소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연료준비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광열비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나, 1, 4分期에 있어서는 날씨가 추워지고 연료준비도 해야하므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비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은 모두 1分期에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3分期였고 4分期에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교육비가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 및 학교 교육비의 納入期間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즉 1分期에는 入學 등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4분기에는 졸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교양오락비는 3分期에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1分期에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避暑나 旅行 등을 많이 하게 됨으로 교양오락용품 및 器具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잡비의 所得彈力性은 교양오락비와는 달리 1分期과 4分期에 높고 2分期과 3分期에는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여름보다 겨울철에 婚禮 등과 같은 각종 慶弔行事나 혹은 동창회 등과 같은 각종 모임들이 많으므로 가계에 있어서 慶弔費, 冠婚喪祭費, 교제비 등의 지출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목이나 각종 節氣 및 의례행사와 관련이 있는 비목일수록 계절적인 차이가 큰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계는 家計豫算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계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都市勤勞者 家計의 소비지출의 變化樣相과 家計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實證的으로 분석한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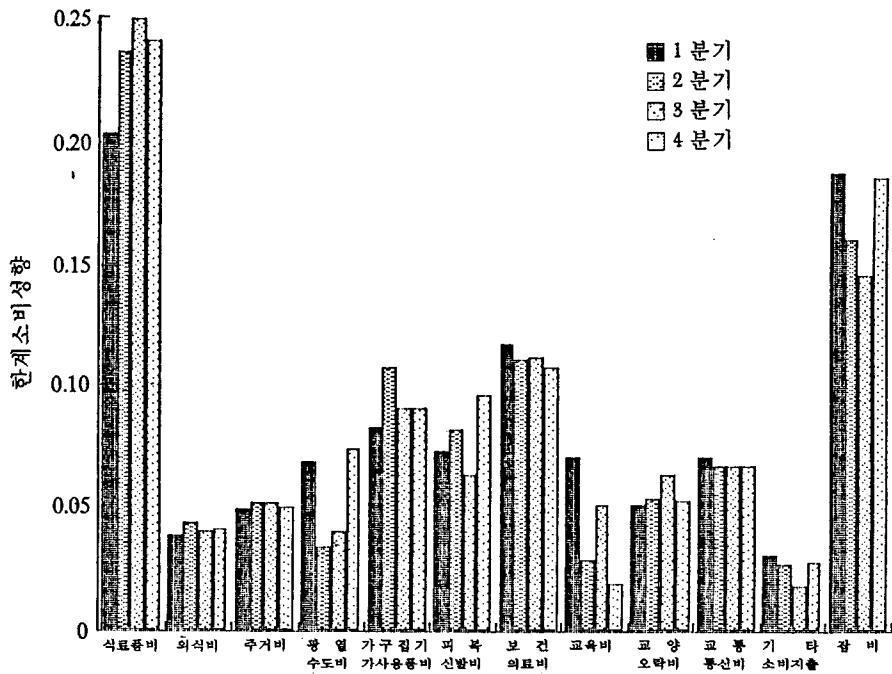


그림 5. 各 費目的 分期別 限界消費性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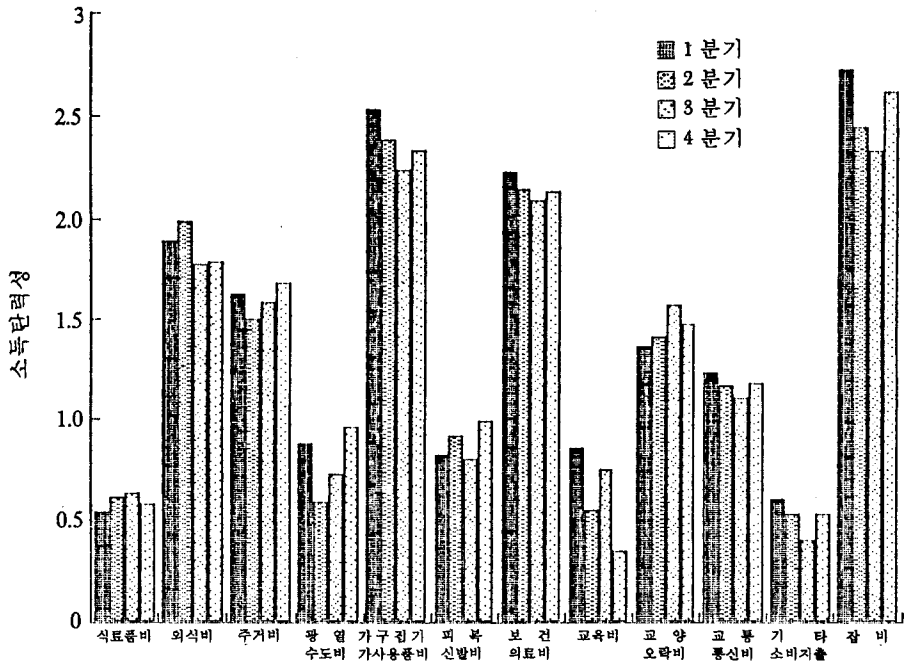


그림 6. 各 費目的 分期別 所得彈力性.

다음과 같다.

1) 總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 可處分所得에 대한 限界消費性向은 0.648이었으나, 家計構成員數로 디플레이트했을 경우에는 0.684로 약간 높아졌다. 可處分所得의 증가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前年對比 소득증가보다는 2년간의 平均所得增加가 家計의 소비지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勤勞所得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기타소득에 대한 限界消費性向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가계의 절대소득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변동소득 수준이 다르거나 기타소득 수준이 다를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다른 수준에서 유지되게 될 것이다.

2) 가계의 可處分所得 증가액에 대한 係數는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有意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피복·신발비의 소비지출에서는 증가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감소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편 相對價格의 영향은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有意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비목에 있어서의 상대가격의 상승은 그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3) 家計單位와 個別消費者 單位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限界消費性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식료품비와 잡비였다. 식료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개별소비자 단위로 할 경우 높아지는 반면에 잡비는 오히려 낮아졌다. 所得彈力性에 있어서는 교양오락비만이 個別消費者 單位의 경우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외의 비목에서는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費目別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간에 있어서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限界

消費性向이 가장 높아진 비목은 잡비였고 가장 낮아진 비목은 식료품비였으며,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통통신비 등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所得彈力性에 있어서 변화를 보면 70년대에 있어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잡비, 주거비의 순이었으나 80년대에 있어서는 잡비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식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등의 순으로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비목은 교양오락비와 주거비로서 교양오락비는 70년대에는 非彈力的이었으나 80년대에는 아주 彈力的이었으며, 주거비는 70년대에는 아주 彈力的이었으나 80년대에서는 非彈力的으로 되었다.

5) 가계의 費目別 소비지출에 미치는 계절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分期間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한 결과, 所得彈力性에 있어서 차이가 비교적 큰 비목은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잡비 등이었으며, 限界消費性向에 있어서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및 잡비 등의 비목이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그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절대 소득수준의 변화, 상대가격의 변화, 소비단위의 차이, 사회 경제적 변화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계에 있어서 소비계획을 세우고 제한된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姜五任(1975). 家計調査에 의한 恩格函數(Engel's function)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 第3輯, 成均館大學校, 63-82.
- 2) 經濟企劃院(1970~1987). 都市家計年報.
- 3) 經濟企劃院(1970~1989). 物價年報.
- 4) 具成烈(1982). 家具規模와 年齡構成이 消費支出에 미치는 影響. 韓國開發研究 4(1), 84-103.
- 5) 金英淑·王仁淑(1989). 都市家庭의 被服類 消費支出分析. 大韓家庭學會誌 27(4), 21-39.

- 6) 金美香(1989). 都市家計의 食料品 消費構造分析.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7) 裴然秀·金正淑·韓在淑(1990). 家計分析에 있어서 Engel Curve의 函數形態에 關한 研究. 大韓家庭學會誌 28(4), 87-101.
- 8) 徐相穆(1980). 民間消費支出 形態의 分析. 韓國開發研究 2(4), 126-145.
- 9) 薛鳳植(1978). 韓國家計의 消費行爲. 서울：創文閣.
- 10) 李基春(1989). 家庭經濟學. 서울：教文社.
- 11) 張明郁(1990). 家庭管理學. 서울：教文社.
- 12) 崔銀淑(1986).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와 決定要因分析.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13) 山口久子(1967). 家族의 構成員數가 家庭의 生活費 構成에 及ぼす 影響. 家庭學雜誌 18(5), 324-327.
- 14) _____ (1971a). 食物費의 支出構成比에 及ぼす 所得效果と 人員效果의 影響. 家庭學雜誌 22(2), 141-147.
- 15) _____ (1971b). 文化費의 支出構成費에 及ぼす 所得效果と 人員效果의 影響. 家庭學雜誌 22(2), 148-153.
- 16) 西垣一郎(1980). 家庭經濟概論. 明文書房.
- 17) 柳本正勝·柳本武美(1982). 食品消費における 季節性의 經年變化. 家庭學雜誌 33(3), 143-151.
- 18) 戶全正志(1980). 家庭經濟學. 酒井書店.
- 19) Abdel-Ghany, M. & Foster, A.C.(1982).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1-28.
- 20) Brown, A. & Deaton, A.(1972). Surveys in applied economics : Models of consumer behaviour. *The Economic Journal* 82(328), 1145-1236
- 21) Dardis, R., Derrick, F. & Lehel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2.
- 22) Eastwood, D.B.(1985).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Allyn and Bacon, Inc.
- 23) Ferber, R.(1962).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2(March), 19-63.
- 24) Fedorenko, N.P. & Rimashevskaya, N.M.(1979). The analysis of consumption and demand in the USSR. Deaton, A., Essays in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consumer behavior in honour of sir Richard St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128.
- 25) Fitzsimmons, C. & Williams, F.(1974). The family economy. Edwards Brothers, Inc.
- 26) Friedman, M.(1957).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7) Gould, J.P. & Ferguson, C.E.(1980). Microeconomic theory, 4th ed. Richard D. Irwin, Inc.
- 28) Hafstrom, J.L. & Dunsing, M.M.(1972). Satisfaction and education :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4-12.
- 29) Hager, C.J. & Bryant, W.K.(1977). Clothing expenditures of low income r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1(2), 127-132.
- 30) Hassan, Z.A.(1974).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22(2), 61-78.
- 31) Horton, S.E. & Hafstrom, J.L.(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 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3), 292-303.
- 32) Katona, G.(1949). Analysis of dis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39(June), 673-688.
- 33) Katona, G. & Fisher, J.A.(1951). Postwar changes in the income of identical consumer units. in *Nat. Bur. Econ. Research,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13). New York : 61-122.
- 34) Klein, L.R.(1951). Estimating patterns of saving behavior from sample survey data. *Econometrica* 19(Oct.), 438-454.
- 35) Lee, F. & Phillips, K.E.(1971).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farm and nonfarm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3, 573-582.
- 36) Liviatan, N.(1961). Errors in variables and Engel curve analysis. *Econometrica* 29(3), 336-362.
- 37) Monroe, D.(1974). Pre-Engel studies and the work of Engel ; The origins of consumption resear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3(1), 43-65.
- 38) Norum, P.S.(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

- 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40.
- 39) Podder, N.(1974). Pattern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Australia. *The Economic Record* 47, 379-398.
- 40) Prais, S.J. & Houthakker, H.S.(1971).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 second im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1) Summers, R.(1959). A note on least squares bias in household expenditure analysis. *Econometrica* 27, 121-126.
- 42) Wagner, J.S.(1982). Family clothing consumption :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composition models. ph.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
- 43) Wagner, J. & Hanna, S.(1983).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ar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3), 281-291.
- 44) Winakor, G.(1975). Household textiles consumption by farm and city families : Assortment owned, annual expenditures and sourc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2-26.
- 45) Zimmerman, Carle C.(1932). Ernst Engel's law of expenditures for foo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47, 78-101.